

DU-도전학기 결과보고서

성 명		학 번	
단과대학	한국어문학부	학과(전공)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도전학기 과제명	(한글)부산 탐방 후, 나만의 소설 제작하기 (영문)create my own novel after visiting busan		
지도교수 의견	도전학기 참여자 오다혜는 그간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부산 여행을 기반으로 한 성장소설의 개요를 성실하게 작성해 왔습니다. 오다혜는 지금까지 총 세 차례의 지도교수 면담 과정을 통해 도전학기 참여의 의의를 다시금 각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소설로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지도교수는 오다혜가 도전학기 체험을 통해 자기 자신의 성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성찰하기를 기대하고, 그 결과가 소설 창작으로 승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다혜가 충분히 이해하며 소설 창작에 임했다고 평가합니다.		

1. 도전 과제의 목표

1.1 소설 제작

부산을 크게 바다, 시장, 책방골목 세 가지로 나누어 바다, 시장, 책방골목을 둘러보고 내가 그곳에서 보고 느낀 감정들을 소설 속 가상의 ‘나’ 를 만들어 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여행을 하고 여행에세이를 쓰는 게 아닌 소설을 작성해 등장인물들을 등장시킬 생각이다. 그 인물들을 구체화해 주인공이 여행을 떠나는 이유, 현재 주인공의 상황, 주인공의 평소 생활패턴 등 나의 상상력으로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가 등장하는 소설을 제작할 것이다.

1.2 전공 역량, 취업 역량 강화

하나의 소설책을 나의 상상력으로 기술하면서 소설스토리텔링 작업을 통해 전공 역량을 기를 것이다. 탐방을 다녀온 후, 소설을 쓰기 위해선 무엇이 중요하고 내가 보고 경험한 것들 중 무엇이 소설로 쓰기에 재미있는 내용인지 탐구하고, 소설로 나의 이야기를 풀어서 쓸 때 어떻게 써야 독자가 읽기에 편하고 가독성이 있는지 배우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소설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번 도전 학기 과제를 통해 독자의 눈높이에 맞게 글을 쓰는 법을 알아볼 것이다.

또한 작성한 소설을 출판사와 콘택 후, 실제 출판 과정을 거치면서 출판 관련 업무는 어떻게 돌아가는지와 출판 관련 지식(종이종류, 디자인, 글 편집 등)을 알아볼 것이다. 출판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다뤄 책이 실제로 출판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보면서 출판사 관련 취업을 하기 위해선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와 내가 갖춰야 할 사항들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다.

2. 도전 과제 내용

2.1 부산 탐방

부산을 시간 순서대로 국제시장과 강동시장, 보수동 책방골목, 해운대를 탐방했다. 소설의 소재가 될 수 있을 곳을 찾아 탐방을 하였고, 책에 삽입할 탐방사진을 촬영하였다.

탐방을 통해 대구와 부산의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었다. 같은 경상도지만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나 어투가 신기했다. 버스나 도시의 경치도 달랐다. 버스는 디자인이 대구의 버스와는 완전히 달랐고, 부산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대구와 다르게 탁 트인 경치를 자랑했다.

처음 가보는 곳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점과 낯설고 잘 알지 못해 실수를 하는 경험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경험이다. 나 또한 부산을 처음 탐방하면서 이를 느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통해 휴식을 갖는 기분을 느꼈고, 바쁜 도전학기 활동 중 회복을 하게 해줬다.

부산탐방을 통해 느낀 점을 소설 원고 작성에 참고해 글을 썼고, 소설 전개를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2.2 소설 원고 작성

소설 「오늘은 쉽니다」

등장인물: 석란희(주인공), 편의점사장, 조별과제조원1, 2, 3, 친구 규이, 엄마, 교수, 편의점손님, 버스기사, 모자가게사장, 밀떡과는 상인, 책방골목주인

소설의 제목을 ‘오늘은 쉽니다’로 정한 이유는 ‘란희’가 바쁘게 살아가는 대학생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비쳤으면 좋겠다는 나의 바람이다. 내 주변 학교 친구들을 보면 하는 활동도 많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는데도 항상 입에 ‘내가 남들보다 부족한 거 같다, 다른 사람들 보면 너무 열심히 살아서 불안하다.’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자주 보였다.

어쩌면 ‘란희’는 현재 대학생들을 대변하는 캐릭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란희’가 소설에서 겪는 일들은 현실에서 학생들이 자주 겪는 일들로 구성을 했다. 그래서 ‘란희’가 부산여행을 통해 심신을 회복하는 걸 학교 친구들이 읽고 실제로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이 작품을 읽으면서 잠깐의 휴식을 했으면 했다. 이게 책 제목을 ‘오늘은 쉽니다’로 정한 이유이다.

-소설 「오늘은 쉽니다」의 책 내용.

사건 전개: 치열하게 바쁜 일상을 살던 대학생 청춘 ‘란희’는 원하는 계획과는 다르게 자꾸 어긋나는 일상에 지치게 되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기 위해 무작정 부산으로 떠난다. 부산에서 ‘란희’는 어떤 일들을 경험할까? 풀리지 않던 숙제들을 풀 수 있을까?

발단: 타지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란희’. 학교를 다니기 위해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금수저를 물지 못한 란희는 성적장학금을 받아 학교등록금을 마련하고 주중으로 편의점알바를 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한 공부와 주중 계속되는 알바로 쉴틈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란희에게 유일한 친구는 규이 뿐이다. 같은 고등학교를 다녀 서로 알고는 있었지만 친해질 일이 없었던 두 사람은 같은 대학교 같은 과(국어국문)에서 만나 친구가 된다.

전개: 평화롭게 흘러갔던 란희의 1학기는 얼마 못가 끝이 난다. 원래 조별 없이 진행되었던 교양 ‘기차의 역사’ 수업이 동영상제작을 위한 조별과제가 생기게 된다. 란희가 속한 죽음의 4조. 4조는 란희를 제외한 조원 셋이 조별에선 있으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조원들로만 모인 조였다.

위기: 학교공부와 알바, 토익준비로 바빴던 란희의 삶에 조별불똥이 떨어졌다. 잠수에 자료복불에 조장인 란희에게 모든 걸 다 떠맡긴다. 답답하지만 성적은 잘 받아야되니 혼자서라도 과제를 쳐내는 란희. 교양과제만으로도 힘들게 규이는 자신의 힘든 점을 란희에게 다 털어놓으면서 위로받고, 의지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란희에게 규이의 힘듦은 힘듦이 아닌 투정, 사치, 부러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둘의 관계는 조금씩 둘이 모르는 사이에 균열이 생긴다.

절정: 짜증나는 조별과제는 계속 되고 과제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공부와 알바는 계속된다. 집에서 공부, 주말이 되면 알바. 란희는 반복되는 생활에 지쳐간다. 그런 란희에게 온 재앙, 진상손님. 란희는 진상손님을 만났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되고 사장에게 크게 깨지게 된다. 란희는 크게 깨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러움에 눈물을 흘린다. 눈물의 밤이 지난 후, 동영상과제 제출 전날 밤, 조별과제 진행상황을 조원들에게 문자 이미 제출을 했다는 얘기를 듣는다. 이에 놀란 란희는 제출했다는 과제를 확인하니 그 과제는 완전 망해있었다.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도 안 잡히는 와중에 규이는 란희에게 계속 자기 신세한탄을 한다. 란희는 규이에게 화를 내게 되고 둘은 크게 싸우게 된다.

결말: 알바에서 깨지고 조별과제 깨지고 친구와도 깨지고 이제 더 깨질 것도 없는 란희. 란희는 막연히 생각하던 여행을 대출해 가지고 있었던 에세이집 ‘내가 만난 부산’을 보고 가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란희는 부산으로 무작정 여행을 떠난다. 부산의 여러 명소들을 여행하는 란희. 가보고 싶었던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오랜만에 여유를 느낀 란희는 규이를 떠올리고 규이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한다. 여행 후 란희는 규이와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고 둘은 관계를 회복한다.

3. 도전 과제의 성과

- 평소 관심 있었던 부산을 도전학기를 통해 탐방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내가 본 사물이나 풍경, 경험했던 일을 묘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 소설 원고를 작성하면서 도전학기 활동을 하기 전보다 스토리텔링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 출판사를 통해 소설책을 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책자를 인쇄할 수 있었다.
-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 독립적으로 행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고, 나를 돌아보면서 한층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4. 자기 평가

먼저 아쉬운 점이 많은 활동 기간이었다. 활동 기간 동안 계획했던 모든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던 시간이었다. 소설을 쓴다는 건 생각보다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고, 하루 동안 계속 책상에 앉아있어도 작업물을 만들긴 쉽지 않았다. 한 장 넘게 작성을 하는 날도 있었지만 한 단락도 아닌 한 줄도 쓰지 못해 끔찍했던 날도

있었다. 글 쓰는 실력을 더 키워야겠다고 생각했고 혼자 반성도 많이 하였다.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뿌듯했던 점도 있었다. 작가지망생이라곤 했지만 완성한 소설 하나 없는 작가지망생이었다. 작성하고 있던 작품도 없었고, 내가 글을 쓰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소설 원고 작성을 하면서 단편소설이지만 완성된 작품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는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결과이다. 소설의 개연성을 해치지 않는 사건 전개를 만들고, 왜 주인공이 이런 선택을 하는지 주인공을 더 들여다보고 특성을 어떻게 해야 더 살릴 수 있는지 생각했다. 또한 주변 지인들에게 부족한 점이나 수정했으면 하는 점을 물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소설에 재미를 느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를 시작으로 소설 창작을 계속하고 더 많이 공부해 역량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다.

5. 최종 결과물

책 「오늘은 쉽니다」